



보육교사 아동학대 증가 불구 인성교육 '뒷전'

보육교사 22만9548명 중 최근 2년간 1만1000명만 인성교육 이수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인성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보육진흥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보육교사는 1만1,000명으로 전체 보육교사 23만 명의 4.8%에 불과했다. 최근 2년간 한국보육진흥원의 인성교육 계획인원은 1만1,000명으로 현재의 교육계획대로라면 전체 보육교사가 한차례씩 인성교육에 참여하는데 38년이 걸린다. 반면 보육교사가 가져야 하는 아동학대사건은 2012년 110건에서 2016년 56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사건이 6,403건에서 1만8,573건으로

2.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보육현장의 아동학대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부실한 인성교육에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많은 교사가 여전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의 1일 평균근로시간은 2012년 9시간28분에서 2015년 9시간 36분으로 8분 증가한 반면, 휴식시간은 26분에서 18분으로 8분 단축됐다. 또한 초과근무가 있다는 보육교사의 비율은 2009년 50%에서 2015년 73.1%로 무려 23%p나 급증했다. 보육교사의 인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인성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

격무에 지친 보육교사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인성교육 진흥법'상의 교원에 포함되지 않아 인성교육 의무이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교사의 경우 동법에 따라 연 60시간(서울시 기준)의 직무연수 이외에 4시간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오세재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인성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의 "인성함양 및 업무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지면 아동학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유치원 교사처럼 보육교사도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인성함양 지원을 위한 '마음성장 프로젝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에 인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정복기자

23~24일 중부 중심은 예상

기상청이 23~24일 중부 중심 눈이 예상되며 수험생 교통안전 유의할 당부했다. 수능일인 23일 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과 전라내륙, 경북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특히 23일 아침에는 서울·경기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또한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수험생들의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 바람다 기상청은 밝혔다.

24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에 경기서해안과 충청도, 전북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아침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일부 경상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5km 상공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서해상으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24일 새벽부터 아침에는 지상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고 내린 눈이 얼어붙어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며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밖의 중부(강원영동 제외), 전라도, 경북내륙, 경남북서내륙, 서해5도: 1-5cm가 예상된다. 한편 25일 오후~26일에는 다시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강원산지 비 또는 눈)가 예상된다. 박봉관기자



대전시,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골고루 잘사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부산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을 주제로 전시관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22일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및 지역발전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전공공기관장, 기업,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의 인사를 받으며 대전광역시 전시관을 찾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시아-유럽 교육협력 강화... '서울선언' 채택

제6차 아셈 교육장관 회의서 교육협력 10년 비전 제시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무크(MOOC·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공동개발 등 교육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교육장관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선언'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와 유럽의 교육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21일 서울서 개막한 아셈 교육장관회의는 다음 10년을 위한 협력-공동의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실천까지 라는 주제로 스위스·아일랜드·라오스·중국·일본 등 42개 회원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등 11개 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21일에는 아일랜드·필리핀·스위스·태국 등 4개국 장·차관이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미래 ASEM 교육협력'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22일에는 4개국 장관(슬로바키아 장관, 인도네시아 장관, 루마니아 장관, 중국 차관)의 발표를 포함해 두 번째 의제인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미래 아셈(ASEM) 교육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한국은 이번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아시아-유럽 간 교육협력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 아셈(ASEM) 교육협력 10년 비전을 제시하는 최초의 장관선언문인 '서울 선언'을 회원국과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채택했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협력을 강화하고자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ASEM MOOC Initiative)를 제안했다. 아시아-유럽 간 무크(MOOC)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셈 무크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아시아-유럽 간 지속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아셈(ASEM) 내에서 한국 교육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가 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아셈 듀오(ASEM-DUO)사무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과 같은 관계기관을 활용한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 한국의 활발한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홍보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장관회의가 지난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온 아셈 교육협력의 향후 10년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장관회의가 10년 뒤에도 성공적인 회의로 인정받고 회자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안희정 지사 내년도 예산 확보 총력전

국회 방문... 지역 주요 현안사업 예산증액 지원 요청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22일 국회의를 다시 찾았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예결위원, 지역 국회의원 및 기재부 주요 관계자를 만나 2018년도 충남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그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안 지사를 비롯한 행정부지사 등 지휘부 및 실국장이 번갈아 국회의 방문, 증액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왔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이 복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집중되고, SOC사업은 전년대비 20% 줄

어든 가운데 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 방문에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더 나아가 환황해경제 시대를 견인하고 새로운 미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강화선 복선전철 예타 통과 등 50억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개설 예타 통과 등 26억 △영동고속도로 국가매입 80억 △서산 공공비행장 민항 유치 10억 △계룡 신도안~대전 세종간 광역도로 건설 50억 △수소도전 전철 연장(독립기념관 타당성 용역 3억)의 국회증액을 제안했다.

또 △천안아산KTX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 건립 2억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시험·기술지원센터 건립 7억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57억 등 총 52건, 7439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국회의원에게 지역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중앙부처 출장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다.

김정환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 동 정 ◆

수험생들 격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23일 오전 7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대전돈원고등학교, 대전만년고등학교)을 방문하여 수험생들을 격려...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은 23일 오전 10시 시청 제10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시민대토론회에 참석, 오전 11시 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 참석...

장애인활동 이용자 교육



한현택 동구청장은 23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장애인활동 이용자 교육을 참석...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종무식



박용감 동구청장은 23일 오전 10시 용두동 주민센터에서 '용두동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종무식' 참석...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



장종서 구청장은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현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 참석...

금연이파트 지정 현판식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3일 오후 2시 열매마을 6단지에서 열리는 열매마을6단지 금연이파트 지정 현판식에 참석...

복지전달체계 소통 워크숍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23일 오후 4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민·관·학 협력 복지전달체계 소통 워크숍에 참석...

시 유입차단 비상... 방역활동 강화

차단 방역 상황과 농가별 소독 활동·향후 대책 등 종합적 점검

대전광역시기 전북 고창 육육 오리 농가와 전남 순천 아생조류 분원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날 방역협의회 참가기관들은 AI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역학관련 상황의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하였으며 방역취약농가 등 긴급 농가에 대한 집중 지도와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특별예찰 등 질병 관리체계 구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야생조류에 대한 차단시설 강화와 주변 소독을 통해 질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18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유성구,국세·지방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2018년 개별주택특성조사'를 오는 27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의 특성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이후 소유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 결정·공시가 이루어진다.

“현안사업 내실 추진·미래비전 실현 가속화”

대덕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은 2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2018년을 맞이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선6기 현안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제시됐다.

올 연말 부채 20억 원 상환을 끝으로 민선6기 출범당시 부채 67억 원을 모두 갚아 부채제로 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역점사업으로는 ▲ 교육혁신도시 실현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 ▲ 가스 안전도시 대책 실현 ▲ 효자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 민선6기 일자리 공시목표 2만 명 달성 ▲ 신탄진 시외버스정류소 설치협의 ▲ 나리꽃 무궁화향기 가득한 로하스길 조성 ▲ 공한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다가오는 2018년은 대덕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이 가시화 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개발에 따른 주거단지 조성이 마무리 되는 2022년을 대비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민선6기 현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상급기관 재정지원 사업 확보 등 구정의 새로운 발전 동력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중구 낙엽 쓰레기 유기질 퇴비로

100여톤 농가전달... 예산절감·환경보호 일석이조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낙엽 쓰레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거리청소로 수거한 낙엽을 유기질 비료 생산 농가에 전달해 퇴비화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을 비교하여 150만원 가량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되는 폐현수막을 중구시니어클럽의 협조로 200여 용량의 재활용 마대 5,000개를 제작, 낙엽쓰레기 수거

용으로 활용함으로써 2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 또한 거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낙엽 퇴비화 사업 추진으로 매년 발생하는 낙엽 처리과정의 수고로움을 덜고 예산을 절감하는 물론, 폐현수막도 효과가 있어 더 많은 농가에서 낙엽 퇴비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문의 (042)538-3030



하나로내과의원충남대병원 발전기금 5천만원 기부. 대전 대덕구 종리동에 위치한 하나로내과의원이 연말을 맞아 충남대학교병원 발전기금(내과계열 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1동 이웃사랑 김장나눔 한마당

민관합동 소외계층 나눔의 자리 마련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22일 겨울을 맞이해 지역 자생단체와 함께 저소득 노인·다문화·장애인·조손·한부모 가정 등 총 500여대를 대상으로 '법1동 이웃사랑 김장나눔 한마당'을 진행했다.

회복지관이 주관했으며, 법1동동장협의회·법1동주민자치위원회·주공3단지관리소·대전영락교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심배추와 양념으로 500박스(5000kg)의 김장김치를 정성껏 담고 포장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한 박씩 직접 방문 전달했다. 법1동복지만두레 문명자 회장

은 “우리 주변의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겨울철이 더욱 혹독하게 느껴진다. 저희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그 분들을 포근하게 감싸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1동만두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중리복지관 신이원 관장은 “매년 겨울이웃사랑실천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살맛나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병배 기자



서구 희망 무료진료 전개

어르신·장애인들 대상 따뜻한 의료의 손길 전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2일 행복나눔복지관에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희망 무료진료'를 했다. 이번 진료에는, 을지대학교병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원

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 맑은 눈안과 의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대전시 보초기공센터 등 10개 기관 2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기본적인 건강관리 상담부터 약 처방까지 따뜻한 의료의 손길을 전했다. 박봉관 기자

톡톡 튀는 청년들의 창업 아이디어

제1회 당진 청년 창업경진대회 출품 아이템 눈길 ... 15개 아이템 본선 무대 올라

지난 18일 당진시가 개최한 '제1회 Thank U! 당진 전국 청년 창업경진대회'에 출품된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 창업경진대회에는 청년들이 창안해낸 197개 사업 아이디어가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모두 15개 아이템이 18일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창업 아이템 중 중 300명의 청중 평가단과 5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아이디어는 전영석 씨가 제안한 '바지를 벗기지 않는 아웃도어 기저귀'였다.

대상을 수상한 '바지를 벗기지 않는 아웃도어 기저귀'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제안자가 외출시 기저귀를 갈아줄 때 바지를 벗기고 입히기 힘들고 갈아입힐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생했던 '실천



육아' 경험이 녹아있는 아이템이다. 이 기저귀는 바지를 벗기지 않고도

교체가 가능한 밴드형 기저귀와 기저귀를 입히기 쉬운 팬티형 기저귀의 장점을 모아 벨트처럼 두르는 리무빙 허리밴드를 활용해 아이가 움직여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기저귀 교체가 가능도록 개발해 자녀를 둔 청중 평가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작 '기숙사생들을 위한 고단기 미니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는 고영민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다.

이밖에도 본선대회에서 입상에 오른 나머지 5개 작품을 비롯해 이시원 씨의 '차량 진단이 가능한 모바일 자동차카'와 박현규 씨의 '연락처 기반 대리결제 서비스' 등 입상하지 못한 아이템들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경험을 살린 실용성으로 모두 호평을 받았다.

당진=최근수기자



'국립양평치유의숲' 개장식 개최 운영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우측 다섯 번째)이 지난 21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황거길 262-10번지 일원에서 열린 '국립양평치유의숲 개장식'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우측 네 번째), 김선교 양평군수(좌측 다섯 번째) 등이 참석한 내외빈들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 이 시설은 산림청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623ha(주요시설 8680㎡)의 부지에 건강증진센터, 온열치유실, 치유실, 치유숲길(13km), 치유음악, 숲속오두막, 통나무놀이숲, 풍욕장 등으로 조성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인사노무관리 지원 협약

아산시는 지난 21일, 사회적경제와 주관으로 아산시 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과 장애인 근로인력 보장 및 복지종사자 인사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장애인복지관 3층 통합교육장에서 가졌다.

장애인복지관은 1만5000여명 지역장애인의 행복을 위하여 각종 상담, 치료, 교육, 직업재활 등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력 개발 및 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로서 최근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복지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협약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지원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대출에 한해 우대받을 수 있으며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노란우산공제 부가납부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우대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신청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기업인협의회, 취약계층 후원품 전달행사 가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회장 홍원유)는 지난 21일, 아산시 행복키움지원단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제 15회 취약계층 후원품 전달행사를 진행했다.

(주)삼아인터내셔널(대표 채홍웅), 영농회사법인 (주)늘만나식품(대표 권인순), 온주곰탕(대표 김병관) 3개 업체가 참여해 과자, 김치, 곰팡 등 100만원 상당의

식품을 아산시행복키움지원단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품은 아산시 염치읍, 방정면, 선장면, 온양2동, 온양5동의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되어 식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 홍원유 아산시기업인협의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마음을 모아 취약계층 후원

행사를 한다는 것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는 평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산림복지 일자리 확대 내년 99명 신규채용

숲해설가 등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종사자 200명 증대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산림복지시설의 확대에 따른 산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내년도에 산림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정규직 99명을 신규 채용하고, 기간제근로자 6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산림복지분야의 공공일자리 늘릴 방침이다.

▲ 99명 신규채용 ... 정원 150명 → 249명

진흥원은 현재 사무처(대전)를 비롯해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예천)과 국립숲체원(충성, 진곡, 장성), 국립하늘숲추모원(경기 양평), 파랑새유아숲체험원(세종)에서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산림복지시설(청도·양평·대관령·울산숲체원, 세종전원산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해 정원을 249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2018년도 진흥원 조직 및 정원' 등에

대해 심의를 마쳤으며, 내년 초부터 총 3회에 걸쳐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60명을 내달 말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식당·청소·시설관리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간접고용 근로자(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 직접고용(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도 진흥원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 1월 중순경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www.fowior.kr)의 '정보마당/인재채용/채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숲해설가 등 민간 산림복지전문업종사자 1500~1700명(200명 증대)

진흥원은 내년까지 전문업제도에 대한 홍보와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숲해

설가 등 민간 산림복지 전문가의 고용인원을 1700명(200여 명 증대)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193곳으로 이곳에 종사하는 산림복지 전문가는 1493명이다.

아울러 산림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복지 전문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산림복지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운영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에게 산림복지 분야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국민행복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18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송병배기자



탕정면 주민자치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아산시 방정면(면장 유종희)은 21일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2017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계자 워크숍'에서 주민자치 시범실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성과와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주민자치 담당자 및 주민자치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이 중 전국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아산시 방정면 주민자치회(회장 한종태)는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자치 역량'이라는 주제로 탕정면 주민자치회가 거둔 모범적 성과들을 소개했다.

유종희 면장은 "탕정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탕정면 주민자치회의 성공 모델이 우수사례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태 회장은 "2013년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중 탕정면이 탄탄한 기반을 이루어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운영해 탕정면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충남 주요 하천 외래 식물 건강 '빨간불'

외래 동·식물 광범위 확산...지속적 모니터링과 제거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충남도 내 주요 하천의 건강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래 동·식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거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하천 회복과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요 하천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가 도내 수질측정망 설치지점 중 천안천과 공주 유구천 등 15개 시·군 20개 주요 하천 지점을 선정해 추진했다.

연구용역 내용은 ▲수온, 유속, 수소 이온 농도(pH) 등 수생태계 일반 현황 ▲부착물(알류, 어류 등) 수생생물 현황 ▲서식 및 수변환경 조사 ▲수변식생 현황조사 등으로, 2차례의 현장 조사와 문헌 자료 비교를 병행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부착물

태계 교란종인 배스과 블루길, 외래종인 딱봉어 등이 각 하천에서 나타났다.

수변 식생 및 식물상 조사에서는 총 237종의 식물이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곳은 서산 신장천으로 111종, 가장 적은 곳은 대천천으로 66종이다.

이 중 외래종은 미국가막사리, 개망초, 서양민들레, 달맞이꽃 등 62종이 확인됐으며,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상추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은 10개 하천에서 출현했다.

또 서식수변환경지수를 산정한 결과, 20개 지점 평균값은 56.6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하천의 입지적 특성과 수생 및 수변생물들의 서식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수변식생지수는 59.8점으로 비교적 높은 건강성을 보였고, 태안천은 하천 공사로 인해 E등급을 보였다.

반면 천안천과 보령 대천천, 서천 길산천, 홍성 광천천 등은 E등급에 불과했다.

어류평가지수에서는 대부분 C등급(보통)이나 D등급으로 조사됐으나, 유구천과 왕대천은 B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건강성을 보였고, 태안천은 하천 공사로 인해 E등급을 보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부착물 어류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생

태계 교란종인 배스과 블루길, 외래종인 딱봉어 등이 각 하천에서 나타났다.

수변 식생 및 식물상 조사에서는 총 237종의 식물이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곳은 서산 신장천으로 111종, 가장 적은 곳은 대천천으로 66종이다.

이 중 외래종은 미국가막사리, 개망초, 서양민들레, 달맞이꽃 등 62종이 확인됐으며,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상추 등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은 10개 하천에서 출현했다.

또 서식수변환경지수를 산정한 결과, 20개 지점 평균값은 56.6점으로 C등급을 받았다.

하천의 입지적 특성과 수생 및 수변생물들의 서식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인 수변식생지수는 59.8점으로 비교적 높은 건강성을 보였고, 태안천은 하천 공사로 인해 E등급을 보였다.

반면 천안천과 보령 대천천, 서천 길산천, 홍성 광천천 등은 E등급에 불과했다.

어류평가지수에서는 대부분 C등급(보통)이나 D등급으로 조사됐으나, 유구천과 왕대천은 B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건강성을 보였고, 태안천은 하천 공사로 인해 E등급을 보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부착물 어류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생



예산소방서,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실 운영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지난 22일 예산창조지역아리랑집 119소년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및 소년단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아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는 지난 21일, 소방차량 진입교란 지역의 불법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틀라대 대전성모병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개최 기틀라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22일 오후 5시 병원 8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개원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0·20·25·30·35년 장기근속자를 비롯 이념구현 교직원 및 부서, 협력업체, 자원봉사자 등 140명에 대한 공로 표창과 포상이 이뤄졌다.



"중소 협력업체들과 상생발전하겠습니다" 오비맥주는 22일 서울 종로구 동승동 맥주문화체험관에서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열고 상생발전 의지를 다졌다.



아름누리, 역사문화탐방대 성료 아름누리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영호)은 2017년 농촌재능나눔 사업-역사문화탐방대가 지난 9일, 영인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주의 당부

청양소방서, 집안에 가정용 소화기 비치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갑작스런 추위로 인해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 시 각별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난방기구 화재 예방법을 살펴보면 전열기는 사용 전 먼지를 털어내고 플러그나 전선이 손상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석유난로는 작동 중에 주유나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 보일러는 연통이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무 등 가연물로부터 2m이상 떨어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시 대응요령으로는 소규모 기류화재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담요를 덮어 진압하고, 가스 및 전류 공급을 차단 또는 제거하며 대피 시에는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난방기구로 발생한 화재는 난방연료로 인해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으니 집안에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에 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실내체육시설 흡연 전면 금지

아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 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현행 공중이용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국

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로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관내 실내체육시설 418개 업소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와 홍보를 위한 금연표지를 일괄 배부했으며 오는 2017

년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김기봉 아산시보건소장은 "12월 3일부터 실시되는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국토청, 2017년 설계VE 시행 209억원 예산 절감

현재 설계중인 10건의 용역 대상

또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이행회의, 결과보고 등 약 1개월간 설계VE 절차를 통해 선진기술공법 적용 가능성 및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모색한 바 있다.

특히, 지난 8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2,3공구 등 4건의 용역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계VE에서는, 각각 비탈면 보강축소, 절토 비탈면 경사조정, 도로경계표주·절토구역표주 통합설치, 교량기초 진입심도 축소 등 총 215건을 제안하여 그 중 168건을 채택하여 약 1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국토 건설사업의 저비용·고기능화 실현을 위한 설계VE가 공사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교통안전시설, 편의시설 보강에 투입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3공구 도로건설공사 등 현재 설계중인 10건의 용역을 대상으로 2017년 설계VE를 시행하여 총 20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기능은 향상, 비용은 절감

국토청은 지난해에도 총공사비의 4.6%에 달하는 335억원을 절감하는 등 2년간 총 54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도 건설사업의 저비용·고기능화 실현 및 설계VE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용역과 분리, 별도의 설계VE 전문회사 선정 및 전담팀을 구성하여 설계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개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향상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위해

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1만3076건으로 5년 전인 2011년(1만170건)에 비해 28.6% 증가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로 42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5773명이 부상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행정수령현황 300개에서 500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원동기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 유형을 진위형(OX)에서 4지선다형(①②③④)으로 개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승병배기자

서천소방서, 신입 소방공무원 실무적응 교육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20일, 21일 2일간 본서 소회의실에서 이달 6일 신규 임용된 신입 소방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실무적응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신입 직원들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직 윤리관 확립 및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훈련의 주요 과목은 소방행정·예산장비·의용소방·화재구조·예방안전·구급·현장대응조사 분야로 각 팀장이 교관이 되어 신입 소방공무원의 업무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김진홍 소방행정과장은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조직에 첫발을 내딛은 신입 소방공무원들의 빠른 적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참된 소방관으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당진소방서, 서아중학교 학생 25명 대상

미래 소방관 직업체험교실 운영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천)는 22일 서아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미래 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했다.

'미래 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은 중학생들의 수업 과정 중 하나로, 진로탐색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이날 체험은 서아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했으며, 교육내용은 ▲소방공무원 되는 방법 소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방화복 착용 ▲방수체험 등으로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진로체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소년원·충남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사와 학생 대상 응급처치 교육

대전소년원(원장 오영희)은 지난 21일 충남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수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을 설정하여 심폐소생술 이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응급처치 등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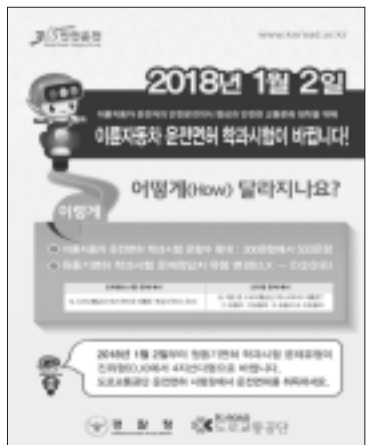
학생들은 진지하게 교육에 참여하여 실습을 마친 후 평소 응급처치 관련 궁금했던 질문들이 풀림없이 이어졌다.

교육을 받은 권연철(가명)군은 "골든타임, 4분의 기적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주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지나치지 않고 꼭 도와주겠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나타냈다.

신필근 생활지도교사는 "응급처치에 대해 궁금했던 점과 잘 알고 있던 것을 바로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교육소감을 나타냈다.

대전소년원 오영희 원장은 "우리 직원들과 학생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충남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성범기자



내년부터 이륜자동차일명 오토바이) 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자동차

통정

공감 토크콘서트



오시덕 공주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주관하고 오후 2시 농업회사에서 열리는 이·통장과 함께 하는 시장 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

만세보령장학회 이사회



김동일 보령시장 = 2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만세보령장학회 이사회, 오후 6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사협회 체육대회 참석.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



이완섭 서산시장은 23일 오전 7시 30분 서산여고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곳을 돌며 수험생을 격려.

오전 10시 충남웨딩컨벤션에서 열리는 노인지도자 간담회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교육에 참석, 오전 10시 30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량지표 최종실적 점검보고회에 참석, 오후 3시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과목별 전략학습법 및 대학입시 설명회에 참석, 오후 5시 시립도서관에서 열리는 시립도서관 운영위원 위촉식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어린이집 원장 실무교육에 참석.

역사문화박물관 전시용역 보고회



박동철 금산군수는 23일 오전 9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2017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공주시, 우수기관 인증 현판 걸려... 민원시책·민원서비스 등 종합적 평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1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로써, 시는 그동안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및 민원실 환경개선, 친절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힘써 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함께하는 참여시정'을 시정목표 중 하나로 내걸고 매주 수요일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공

무원이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또한, 민원사무편람, 시각장애인 점자책자, 차량등록 안내책자, 민원서비스 외국어 번역 책자, 전업자를 위한 공주안내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해 민원편의를 제공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목요 야간 민원서비스' 운영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민원실 내부는 테마별 힐링공간을 조성해 실내 미니정원, 북카페, 계룡산 도예촌 분청사기 전시, 흥미진진 갤러리(그림·사진·시화 전시), 건강증정코너 등 감동과 행복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왔다.

서산시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실시

공중화장실·게이트볼장 등 다중이용시설 96개소 대상



서산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전기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점검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중화장실, 게이트볼장 등 다중이용시설 96개소에서 다음달 8일까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전기직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개폐기, 누전 차단기 등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전기설비 전반에 걸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장 및 위험한 곳은 즉시 수리하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신속히 수리 완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AI 철통방역 이어간다

보령시,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

보령시는 전북 고창지역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농립축산부가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AI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며 올해에도 철통방역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또 20일에는 전북면 신덕리, 21일에는 청소면 신송리 등 2개소에 거점소독소를 설치,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소독을 실시하며 밤 빠른 차단 방역에 돌입했다.

특히, 공무원 및 단기 근로자를 3교대로 투입해 소독차량을 활용한 가금농가 순회 소독을 강화하고, 각 실무면에서는 24시간 상황유지 체계 전환 및 매일 오전 상황 점검회의로 방역추진 일별 처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해나가기로 했다.

김동일 시장은 "AI가 확산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바이러스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상시 예찰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AI가 발생되지 않아 청정보령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와 올해 여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AI의 철통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소 4개소 운영, 대규모 산란계 및 산란종계농장 이동 통제소 2개소 설치, 100수 미만 1020호 농가의 1만735수 자가도매 등 원천 차단으로 AI 재난을 극복했다.

보령=김태성기자

우리/동네

공동주택방범·소방안전·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교육

금산군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



금산군은 지난 21일 다목적회관 3층 대강당에서 관내 8개 단지 의무관리 공동주택관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산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이경석 과장의 방범교육과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한승철 주임의 소방안전교육에 이어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장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책임자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과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군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대규모 및 노후화 등으로 공동주택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및 안전한 주거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확보 시민공청회 개최

서산시 내년 상반기 중 확정

서산시가 미래 도시발전의 로드맵 수립을 위한 고민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오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수립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2030년의 시 미래비전과 분야별 전략 등을 담은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다.

이 전략안은 '환경해림의 허브로(HUBRO), 힘차게 웅비하는 서산!'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개발 ▲도로교통 ▲산업농업 ▲문화관광 ▲교육체육 ▲공간환경 ▲보건복지 등 7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분야별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이 공청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윤주선 한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 승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보희 시의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참석한 시민들이 전략안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보완한 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산의 미래 청사진이 담긴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Modern Traditional Houses advertisement with images and text describing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with modern amenities.

오늘의 하이라이트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근신 처분을 받은 홍주(윤다영)는 대숙(김민희)의 잔소리를 피해 외출을 하고,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미령(조은숙)과 만나게 된다.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재욱은 다시 시작하자며 딸님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딸님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기다리겠다고 한다.

딸님이 행복해지길 빌며 놓아주기로 한다. 고민이 많았던 딸님은 결국 재욱의 마음을 받아들여기로 하고 주위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다.

돌아온 복단지 (MBC 오후 7시15분)



혼자 만족해요. 다음은 박서진이야...! 경찰서 앞에 선 제인(최태훈)과 서진(송선미), 제인은 감춰둔 비밀을 말하는데...

케이블 영화

트랜스포머 (OCN 오후 4시30분)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과 파워를 지닌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과 악을 대변하는 '디셉티콘' 군단으로 나뉘는 '트랜스포머'는 궁극의 에너지원인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전쟁을 벌여왔다.



결혼전야 (채널CGV 오후 10시30분)

결혼 7일전,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순간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너의 과거가 나를 미치게 해!" 과거 남편 태규&주영. 한번 헤어진 후 다시 만난 전직 야구선수 태규(김강우)와 비호기과의 사주영(김효진) 결혼식 일주일 전, 서로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되다!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1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TV 방송 협회 060-398-3355

Table with 4 columns: 영화·오락, 스포츠·레저, 뉴스·다큐, 음악·애니.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프로그램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Lists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태안군청 최영원, 천하장사 씨름대회 태백장사 등극

IBK 기업은행 2017 천하장사 씨름대회



태안군청 소속 최영원 선수가 지난 21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 2017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태백장사에 올랐다.

제1회 윤보선대통령 기념강연 개최



이산시와 이명수 국회의원이 원장(원장 김학준) 주관으로 오는 27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제1회 윤보선대통령 기념강연을 개최한다.

제1회 면암최익현선생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

청양군게이트볼협회 주최 주관... 17개 시도의 128개 팀 참가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3일부터 25일까지 청양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면암최익현선생기 전국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다.

들을 거머쥔 바 있으며, 태안군청 씨름단은 최근 열린 전국단위 씨름대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두며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태안-김정환기자

선임을 선발하고, 본선에서는 코트별 승점, 득실점차, 대전결과, 다득점 순으로 8개 우승팀을 결정한다.

청양=정성범기자

대전 동대초, 아름다운 하모니에 흠뻑 빠져요



대전동대초등학교 교장 김영화(화)는 지난 20일 한울관(체육관)에서 5,6학년을 대상으로 '보령시소년소녀합창단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

했다.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신장을 위하여 실시된 이번 공연은 보령시 소년소녀합창단이 학교를 방문하여 '무지개 바람'부터 '희망의 노래'까지 아름다운 합창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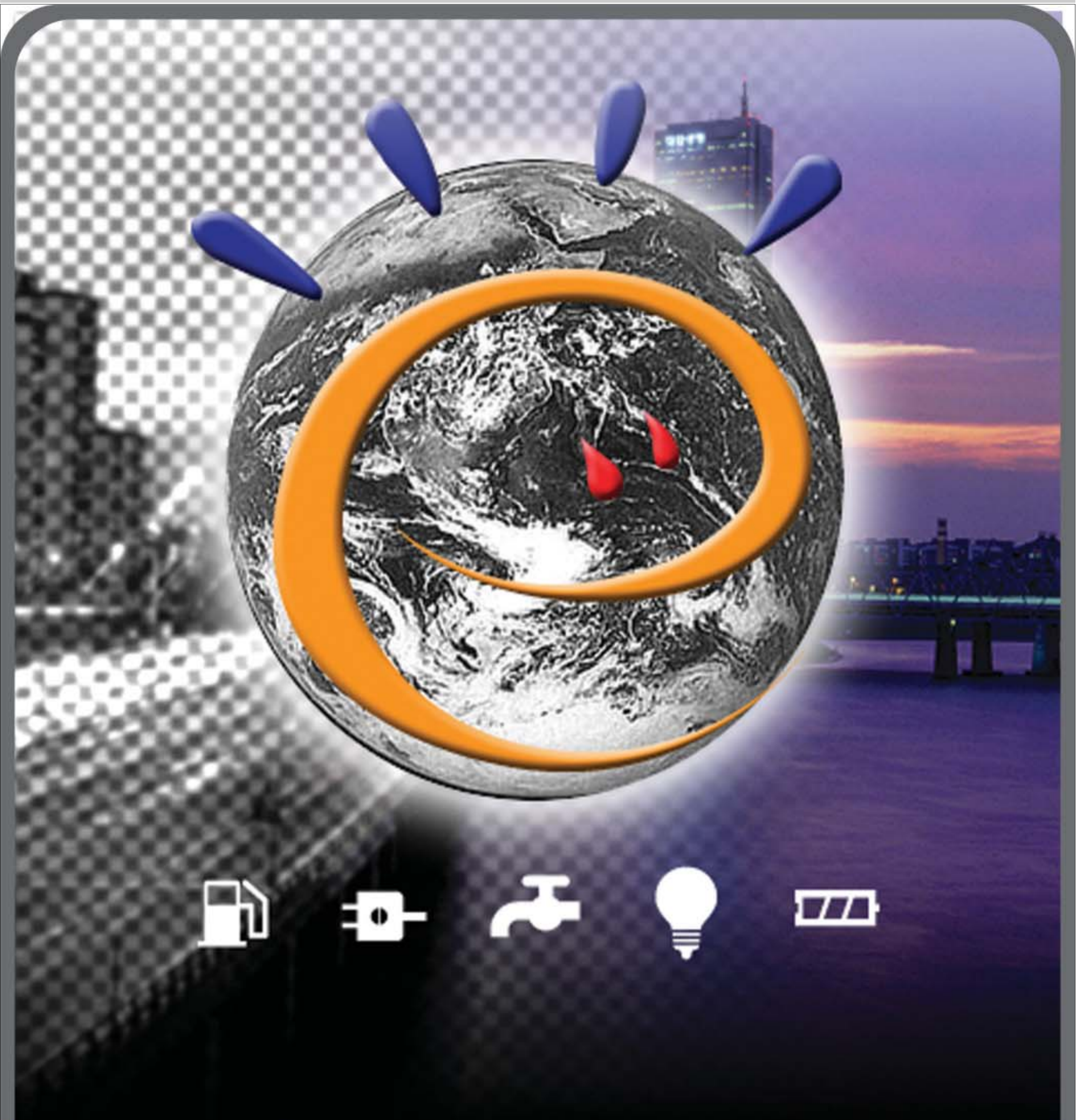
보령=이정복기자

천안교육지원청-천안 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복)은 22일 충청남도천안의료원(원장 김영희)과 교육청 소속 교직원 복지 증진과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에게 더 나은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천안의료원은 앞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친화적 공공병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천안=리영주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 | | | | | | | |
|--------------|-------------------------------------|---------------|----------------------|-------------------------------------|------------------------------------|-----------------|
| 주 관 | 대전투데이 | DTN | | | | |
| 후 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 DS 주식회사 대성 ENT Environment 대표이사 손순용 | KR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
| |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 KR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 청양군 | 국립공주대학교 KONGJU NATIONAL UNIVERSITY | 계룡시 |
| | 예산군산림조합 Yeseon Forestry Cooperative | 한국농어촌공사 계룡지사 | 금산공판장G마트 | | | |